이안의 Media In Buddha ⑨ 영화 〈교섭〉



▶한줄요약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15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 〈교섭〉은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작품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이 아닌 싸구려 재미만으로 채워졌다.

"인간의 절박한 목소리 부족해 아쉬워"

여성감독 최초로 15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탑스타로 꼽히는 황정민과 현빈 주연의 영화 〈교섭〉(임순례 감독)은 제작 단계부터 화제작이었다. 촬영지인 요르단 로케이션이 보여줄 이국적 풍광도 궁금했겠지만,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여주리라고 기대했던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다루는 영화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집단적으로 인질이 되고, 그 인질들은 나라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곳에 유서까지 써놓고 갔는데. 그곳은 오랜 전란으로 위험한 곳이고, 그 전란은 복잡한 외교 상황에 종교적 갈등까지 잔뜩 꼬여 해결될 기미가 없는 지역이라니.

2007년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대사관도 없는 위험한 곳에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을 간 것도 아니라는 저 사람들이 왜 잡혀 있는 건지 도저히 현실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슨 협상이고 애걸이고 할 여지도 없이 인질이 된 사람들 상황이 어떤지, 구할 수는 있는지 제대로 교섭을 하기도 전에 '참수' 되는 모습이 그대로 전세계에 전파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건설노동자들 파견이 많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나 익숙하던 때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냉전시대에는 사회주의 정권과 손잡은 소련과 전쟁을 하고, 냉전 이후에는 내전이 계속되다가 이슬람 원리주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나라였으니 분단 상황에서 우리와는 접점이 없던 나라였다.

그러던 나라가 2001년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합하면서 미국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은 있어도, 그 몇 년 전에 이미 이라크에서 교민 고 김선일 씨가 참수되는 사건 전까지는 그 지역의 어떤 사건이든 '우리나라' '우리 국민' 과는 상관없게 여겨졌었다.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어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몰아붙이고 정부를 새로 갈아 치운 다음에도 미군과 NATO에 맞서는 탈레반은 산악지대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탈레반들이 해맑게 웃으며 선교를 하러 떠난 스무 명이 넘는 한 교회 소속 신도들을 총으로 위협할 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고 하기엔 테러범과는 협상 없다는 미국과 유럽의 서슬이 대단한 시기였다. 돈으로 해결하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던 상황인데다가 국제무대에서 무역 말고 외교적으로 썩 노련하던 시기도 아니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국제적 세력 재편 시기에 세계화와 지역의 관계, 국가와 민간의 역할, 사건 당사자와 대중의 시선 등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극영화가 된다면 '사실' 이라는 껍데기 안쪽에 감춰진 '진실' 을 보게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당연했다.



영화 〈교섭〉의 한 장면.

〈와이키키 브라더스〉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같은 작품들에서 갈등과 사건이 빚어내는 극적인 드라마 뿐 아니라 그 드라마를 겪어내는 인물들 저마다의 사정과 고민, 성격을 생생하게 살려내서, 꼬이고 맺히고 풀리는 캐릭터의 관계에 현실성을 부여하며 기승전결을 이끌어내던 임순례 감독이었다. 심지어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크게 도드라지는 사건 없이도 등장인물의 내면과 성격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관계성 설정만으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연출을 해냈다.

그러니 수십 명의 인질들, 그들을 납치하고 참수할 정도로 악에 받힌 탈레반들과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 받는 당시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인사들, 그 사이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와 외교관, 그 사건을 보도하는 국내외 언론들, 인질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부딪히며, 이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 갈 지를 보여주리라 기대가 큰 영화였다.

그러자면 등장인물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들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했다. 무려 150억 원을 들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관객을 불러내려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액션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 이상의 진정성을 담아내려니 했다.

그런데 〈교섭〉은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하다. 영화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내내 사람과 사람을 들출 때마다, 사건의 고비와 고비를 지날 때마다 뉴스에서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 가 듣게 되리라는 기대가 속절없어진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왜 미국의 마천루에 비행기를 들이 박았고, 왜 민간인을 납치해서 목을 내려치는가? 그런 잔혹한 일을 숨어서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부릅뜨고 보라고 카메라 앞에서 총구를 겨누고 윽박지르며 저지르는가? 그 사건 이후, 인질들과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어떠한가?

임순례 감독의 150억원 규모 블록버스터
어떤 내면도 보여주지 않아 불편한 영화
간다라 문명 정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同根 이슬람, 불교문화유산 파괴
아프칸 참상은 없고 흥미위주로만 전개

〈교섭〉을 보는 내내 저 가운데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예전에 인질을 구하는데 실패한 국정원 요원과 인질 피납 사건 때문에 현지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이 교섭 주도권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의 목표는 인질이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하겠다는 사명감은 같았더라는 확인을 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최대의 갈등이 되어 버렸다.

언론은 인질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교를 하러갔다는 보도를 하면 안됐는데 했으니 빌런이 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저 액션 배경일 뿐이고, 탈레반을 그냥 악역일 뿐이라 교섭을 마친 후에 등장인물들은 어떤 성찰도, 반성도, 성장도 없다. 공허하고 텅 빈 서사와 인물들을 묶어 주는 허구적 코믹 캐릭터인 전직 전도사로 현지 사기꾼 통역 '카심' (강기영)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도드라진다. 영화를 통해 바뀐 것은 돈으로 인질 석방 협상에 성공한 국정원 요원의 자신감 회복, 다투던 외교부 직원과 좋아진 관계뿐이다. 인질들은?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주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을 가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곳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되었다. 많이 들어본 그곳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지는 잘 몰라도,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터로 뉴스에 비춰진 곳이라는 것쯤은 많이들 안다.

북쪽으로는 냉전시대 소비에트 연장 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닿아 있고, 북동쪽으로는 아시아 최대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웃해 있고, 동쪽과 남쪽에는 파키스탄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은 이란인 곳. '~의 땅' 이라는 뜻인 '스탄' 으로 알려진 지역답게 어느 한 방향 바다 쪽으로 트여있는 곳 없이 온통 땅으로 동양과 서양의 이 나라 저 나라로 두루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길목에 있다는 것이고, 동양과 서양을 오가려면 아주 옛날부터 그 길을 지나야 했다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주변 세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길을 차지하려는 싸움에 자주 말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기 쉬운 곳이다.

그런데 다툼이 없다면? 바로 이런 길목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 일찍부터 문명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교류의 터전에 딱 맞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현장이 서역으로 가서 법경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요괴로 날뛰던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를 불제자로 받아들이는 〈서유기〉의 원전인 〈대당서역기〉의 스펙터클 어드벤처 여정에 있는 바로 그 '서역' 어드메쯤, 신라 시대 혜초 스님이 천축국, 토화라국, 파사국을 두루 돌아보며 불법을 구한 〈왕오천축국전〉에서 거쳐간 서역 여러 나라 가운데 '토화라국' 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련과도 전쟁을 벌이고, 미국이라도 전쟁을 벌이고, 탈레반이라는 원리주의 이슬람교가 길고 긴 내전을 벌이던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한때 극동인 신라에서도, 중화라고 뻐기던 중국에서도 불법의 지혜를 구하러 굳이굳이 찾아가야할 만큼 불교가 번성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냥저냥 불교적 문화가 스쳐 지나간 곳이 아니라 대단한 불교 지역이었다는 증표로 남아있던 것이 바미안 대불이었다.

'대불이다' 라고 하지 못하고 '대불이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애석불인 바미안 대불이 지금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기원전 시대에 그리스와 인도를 잇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서양 문명이 어우러져 꽃피워낸 간다라 문명의 정점이라고도 할 만한 바미안 석굴사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

힌두쿠시 산맥 절벽에 2만 개가 넘는 석굴사원과 가장 큰 불상은 높이가 53m나 되는 장엄한 불사로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던 시절의 역사적 증거였던 바미안 대불이 사라진 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 때문인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해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이 벌인 인재 때문이었다.

탈레반이 대불을 폭파하겠다고 했을 때, '설마 진짜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로켓포가 대불을 산산이 부수고 무너뜨리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곳에 선교를 하겠다고 간 개신교도들은 사실 이슬람교와 같은 신을 섬긴다.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의 경전은 뿌리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인 신약에서 갈릴 뿐이지. 기독교의 아브라함이 이슬람교의 이브라힘이고, 기독교의 모세가 이슬람교의 무사는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수천 년을 싸우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서 죽었다. 왜?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칸다하르〉라는 처절한 영화를 만든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은 바미안 대불이 파괴되고서야 전세계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보인 관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석불은 파괴된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탈레반 정권 손에 넘어갔다. 여성들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교육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섭〉을 보며 다시금 부끄러웠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해 150억 원을 투자하고 재미 말고 알게 된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미안 대불이 모래로 흩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표면만의 관심 때문일 것이다. 모래로 흩어진 대불 조각을 모아 복원하는 것보다 더 큰 불사는 다시 길이 트이고 다양한 문화가 그 땅에서 다시 어울리도록 하는 관심부터 시작될 것이다.

〈영화평론가〉



